

보도자료

2010년 7월 14일(수) 배포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방송통신융합정책실 융합정책과 강도현 과장(☎750-2130)
융합정책과 신일진 주무관(☎750-2145) iljin@kcc.go.kr

“생활공감 · 다매체 연동형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본격 추진”

- IPTV · DCATV · 스마트폰 등으로 방송통신 서비스를 통한 생활의 혁신 기대 -
- SNS · 공공DB · 디지털데이터방송 등이 연계된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선도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2010년 7월 14일 IPTV, DCATV, 스마트폰 등 다양한 방송매체를 활용한 신규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과제를 확정하고, 하반기부터 국민 실생활에 직접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과제는 한국정보화진흥원(원장 김성태) 주관으로 지난 2월 각 기관에서 접수된 시범사업 수요조사 결과와 6월 과제공모 등을 거쳐 산림, 교통, 민원 등 다양한 서비스 분야에서 공공기관·서비스 업체·중소솔루션업체의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는 7개 과제이다.

*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시범사업 수요조사('10.2.16~3.5) 및 과제공모('10.5.25~6.9)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시범사업 주요내용>

추진 과제	주관기관 (참여기관)	예산규모 (정부/민간)	주요 서비스 내용
숲의 On 산림휴양등산정보 서비스	산림청 (SKT, 파네즈, 이노지오)	총 5.1억 (2억/3.1억)	○ 스마트폰 증강현실을 이용한 등산로 안내(목적지 방향, 거리, 소요시간 등) ○ IPTV, 스마트폰으로 산 역사, 주변 숙박 시설, 등산로 거리 및 소요시간 안내
다매체 연동 식품정보 서비스	한국식품연구원 (제주도, KBS, 한국CATV제주, 에어코드 등)	총 5.2억 (2억/3.2억)	○ DTV, DCATV에서 제공하는 디지털데이터 방송이 스마트폰과 연동 - 요리법, 영양성분 등 식품정보 제공 ○ 개인의 나이, 성별, 생활습관에 따른 맞춤형 음식 추천

추진 과제	주관기관 (참여기관)	예산규모 (정부/민간)	주요 서비스 내용
영상기반 농업 경영컨설팅 서비스	LGT (한국농림수산정보 센터, 에어코드)	총 5.5억 (2.5억/3억)	○ 귀농귀촌·도시농업인에게 경영 및 식물 재배 방법 등을 IPTV, 스마트폰, PC를 이용하여 전문가와 영상으로 상담 ○ 병충해 예방, 귀농교육 등의 정보 제공
교육콘텐츠 오픈환경 구현	IPTV 교육방송 (한국교총 등)	총 4.5억 (1.5억/3억)	○ 교사, 학생이 자발적으로 제작한 우수한 콘텐츠가 상호 유통될 수 있는 오픈환경 마련
SNS 고속도로 교통정보 서비스	한국도로공사 (맨크레드)	총 5.2억 (1.7억/3.5억)	○ 스마트폰의 SNS 기능으로 사용자가 직접 참여하여 교통상황 제공(동영상, 사진, 텍스트) ○ 고속도로 내 500개 CCTV 영상, 구간 속도, 체증구간 우회도로 등을 제공
서울시 영상 민원상담 서비스	서울시 (SKB, SK텔레시스, 소리나무솔루션)	총 6억 (2.5억/3.5억)	○ 민원발급 및 상담 등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영상으로 서비스
다매체 기반의 법률 영상상담 서비스	KT (법률구조공단, 팜즈커뮤니케이션)	총 5.5억 (2.5억/3억)	○ IPTV,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전국 300여명으로 구성된 법률전문가(변호사, 상담 전문직원)와 영상으로 법률상담 ○ 동영상으로 법률상담사례, 법률상식 등 제공

* 사업규모 : 총 37억원(정부 14.7억원, 민간 22.3억원)

이번에 추진하는 사업은 과거 단일 매체를 활용한 단순 시범서비스가 아닌, 공공기관의 다양한 공공DB가 다매체와 연동되는 n-screen 전략을 통해 실제 생활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융합서비스 모델 발굴에 중점을 둔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시범사업을 통해 기존의 유로 방송통신 시장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고 다양한 서비스산업의 선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부·공공기관 및 기업 등으로 구성된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민관합동추진협의회」를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금년도에는 공공분야를 중심으로 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내년부터는 기업간 협력 등이 요구되는 민간분야 융합서비스 모델도 발굴·확산해 나가도록 하겠다.

붙임 :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시범사업” 주요 서비스 내용

[붙임]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시범사업” 주요 서비스 내용

1. 다매체 연동, 공공DB 활용한 산림등산정보 서비스

산림청에서는 국민이 즐겨 찾는 한라산, 설악산 등 100개 산의 등산로와 지리산 숲길 정보 등을 SKB의 IPTV와 SKT의 스마트폰으로 제공할 계획이며, 향후 600개 산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등산객은 산림청에서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현재 자신의 위치, 등산로 안내, 목적지까지의 남은 거리, 위험지역, 근처 유적지, 화장실 등 등산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이용할 수도 있으며, 집에서는 출발하기 전에 IPTV로 산의 정보와 등산로 코스 등을 미리 확인할 수도 있다.

산림청 등 국가·공공기관이 보유한 다양한 공공DB를 IPTV, 스마트폰 등의 매체를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국민생활을 보다 편리하게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



2. DTV, DCATV, 스마트폰 상호연동, 생활에 필요한 식품정보 서비스

DTV, DCATV에서 제공하는 디지털데이터방송이 스마트폰과 상호연동되어 웰빙시대에 맞는 개인의 건강과 관련된 맞춤형 식생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청자는 식품관련 프로그램*을 보면서 한국식품연구원에서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은 후에 스마트폰으로 방영되는 음식을 촬영하면, TV 화면의 제목, 로고 등을 인식하여 한국식품연구원에서 보유한 요리역사, 영양성분, 요리법 등 6만 6천여 건의 다양한 식품정보를 볼 수 있게 된다.

* 디지털데이터방송이 가능한 한식탐험대(KBS1)와 웰빙스토리 3색 제주(케이블TV 제주방송) 프로그램은 '10년 말부터 방영예정

또한 스마트폰에 자신의 건강상태(몸무게, 키, 혈압, 혈당 등)를 미리 입력해 놓으면 내 몸에 맞는 식재료·요리법, 주변 음식점 등 개인의 맞춤형 식품정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3. 영상을 이용한 농업 경영컨설팅 서비스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에서는 농작물재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귀농귀촌, 도시농업인에게 영상으로 경영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농업인이 IPTV(LG유플러스), 스마트폰, PC를 통해 상담예약을 하면,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의 농업전문가 500여명과 농업인을 연결하여 영상으로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또한, 생육환경, 병충해 예방법, 귀농교육 등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DB 정보를 IPTV, 스마트폰 등 매체를 통해 제공함으로써, 최근 젊은층의 귀농귀촌 및 농업종사자들에게 안정적으로 농업생활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며, 농업분야의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4. 우수한 교육콘텐츠가 활용될 수 있는 오픈환경 마련

그동안 지적되었던 교육콘텐츠의 부족과 활용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EBS, 한국교총, IPTV 교육방송 등 교육관련 기관이 협력하여 현장에 있는 교사와 학생이 교육콘텐츠를 활용·유통할 수 있도록 하는 오픈환경을 구축하여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우수교사의 강좌, 방과후학교 전문교육 콘텐츠뿐만 아니라 현장경험이 풍부한 현직교사가 직접 교육콘텐츠를 제작하여 웹을 통해 오픈마켓에 등록하면, 학생들은 IPTV, DCATV, 위성방송, 스마트폰 등을 통하여 콘텐츠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되며, 교사가 등록한 콘텐츠를 평가도 할 수 있게 된다.

5. 스마트폰 SNS를 이용한 참여형 교통정보 서비스

기존에는 집이나 사무실에서 PC나 IPTV를 통해 도로의 교통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동중에도 스마트폰의 SNS 기능을 이용하여 서비스 이용자가 직접 참여하고 활용할 수 있는 교통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운전자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스마트폰으로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실행하고 음성이나 문자로 행선지를 입력하면 현재위치, 이동경로 등에 따라 같은 행선지의 운전자와 자동으로 “자동차 친구(길벗)” 그룹이 형성되어 상호 교통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운전자의 행선지가 부산인 경우에 목적지가 같은 차량 운전자와 SNS를 통해 교통상황 정보를 서로 교환할 수 있고, 길이 막히는 경우에는 먼저 출발한 운전자에게 “길이 왜 막히는지!, 어디까지 막히는지!”도 물어볼 수 있으며, 현장의 교통정보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 길벗에게 보내 줄 수도 있다.



또한 “어느 휴게소에서 쉬는 것이 좋은지!, 어떤 휴게소가 붐비는지!” 등의 정보도 서로 공유할 수 있게 된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들 운전자에게 전국 고속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500여개의 주요 구간 CCTV 영상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어서, 앞으로 설, 추석 등 명절 귀성길과 휴가철 차량 이동 등에 활용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교통의 흐름이 원활해져 고속도로의 정체해소와 이동시간 단축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6. 편리한 영상으로 민원·법률 서비스

서울시와 법률구조공단은 영상으로 민원·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민원인이 전화를 이용해 상담을 받거나 직접 찾아가야 하지만, 앞으로는 영상으로 상담을 받고 필요한 민원서류는 우편으로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3월부터 SKB를 통해 “서울시 IPTV 서비스”를 개설하여 문화관광, 역사·교양강좌(VOD), 취업정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여기에 “화상 민원방”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할 계획이다.

“화상 민원방”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민원인이 직접 서울시청에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 “서울시 IPTV 서비스”에 접속하여 상담예약을 신청하고, SKB에서 제공하는 영상기능을 이용하여 간단한 본인인증(화면에 주민등록증과 본인을 얼굴을 동시에 보여줌) 절차로 민원상담 및 8종*의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며,

* 8종 민원서비스 : 간호조무사, 안마사, 조리사, 요양보호사, 개인택시 면허증, 공인중개사, 보육교사수료증, 공무원경력증명 등 각종 증명서 발급 서비스

또한, 법률구조공단은 법률상담이 필요한 사람이 KT의 IPTV, 스마트폰, 3G폰, 인터넷전화 등을 통해 상담을 신청하면, 공단 내의 300여명으로 구성된 전문변호사 또는 법률상담 직원과 화상으로 개인 회생, 파산지원, 보이스피싱 등의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 법률구조공단은 전국 300여명의 전화상담 요원을 통해 매일 10,000여 건의 상담서비스 제공

그 밖에 1,100여 개의 법률상담사례, 법률상식 등 동영상·텍스트와 법률상담소(전국 70여개) 안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기존의 PC, 전화 및 직접방문이 아닌 영상상담을 통한 민원·법률 서비스로 한 단계 높은 공공·행정 서비스 실현이 가능해질 것이다.
끝.